

# BRIEF

Vol. 09 | 2022. 05.31.



작성: 이인숙(선임연구위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3층 T.055-713-7074 F.055-713-7093 www.gnwff.or.kr

## 경남 어린이 안전 실태 및 지원 방안<sup>1)</sup>

- 01.  
연구개요
- 02.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 03.  
어린이 안전사고인식 및 안전행동실천
- 04.  
어린이 안전영역별 정책 제안

- 지난 30년간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 인구가 급감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임. 미래세대인 어린이 인구 급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린이 안전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어린이는 발달단계 상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어린이의 안전보장을 위해 생활 속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2003~2018년에 이르는 네 차례의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수립과 주요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0년 14.8명에서 2006년 7.1명, 2011년 4.2명, 2015년 3.2명, 2017년 2.9명, 2019년 2.6명으로 감소하였음
-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어린이 통학차량 질식사고, 수영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고발생률과 손실률은 여전히 높아 어린이 안전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임
- 경남은 2010년에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최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05)이 제정되어 어린이 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체계 기반이 마련되었음. 경남의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정신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실천이 필요함

### 01 연구개요

#### 어린이 안전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년 11월 20일 ~ 2021년 12월 20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웹설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 경상남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855명  
(\*학교급/거주지역 통계에 따라 층화표집 실시)

유형	성별	학교급	지역
참여 인원	여학생 412명 남학생 443명	초등학생 357명, 중학생 343명, 고등학생 155명	시지역 534명 군지역 321명

#### 조사항목

- 안전사고 경험,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성 인식, 안전행동실천, 비행행동 및 피해경험, 안전교육 경험 및 만족도,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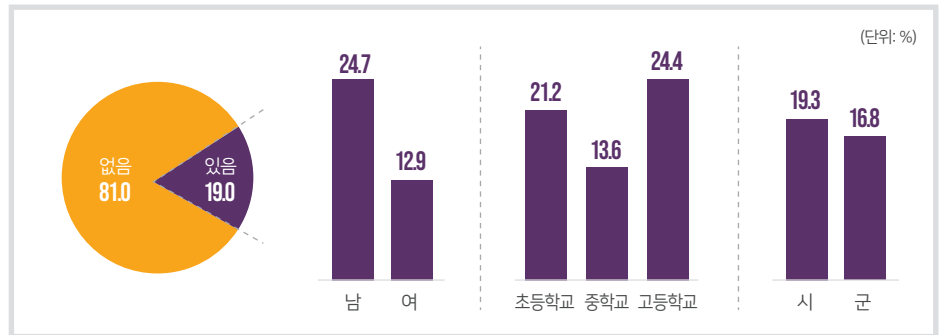
<sup>1)</sup> 본 내용은 2021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상남도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며, 지면관계상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함. 본 연구에서 '어린이'는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로 함

## 02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 ■ 안전사고 경험

- 경남 어린이의 최근 3년 동안 안전사고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855명 중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대상은 163명으로 전체의 19%이고, 81%는 사고 경험이 없음
- 안전사고 경험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여학생의 사고 경험은 12.9%, 남학생은 24.7%로 남학생의 사고 경험률이 11.8%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 차이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안전사고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안전사고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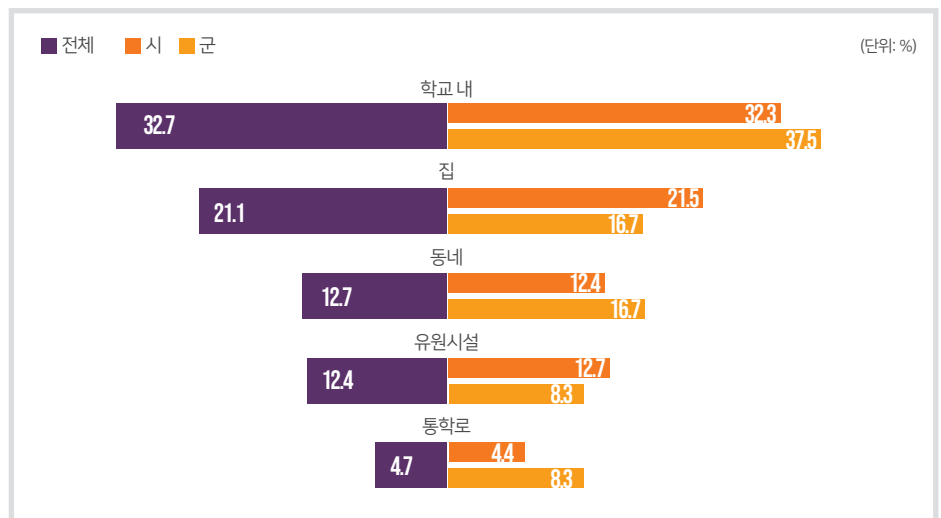
그림 1 안전사고 경험



### ■ 안전사고 발생장소

-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사고 장소는 학교 내가 3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집 21.1%, 동네 12.7%, 유원시설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사고 발생 장소 중 집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은 시지역(21.5%)이 군지역(16.7%)보다 높은 반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은 상대적으로 놀이시설이 부족한 군지역(37.5%)이 시지역(32.3%)보다 높음

그림 2 안전사고 발생 장소



■ 안전사고 유형

- 안전사고 유형은 수업(체육수업 등) 중 사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시설 (쉬는 시간 등)사고, 보행 중 사고, 자전거·킥보드 사고 등의 순임
- 안전사고 유형은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수업 중 사고가 가장 많고, 중학생은 자전거·킥보드 사고가 가장 많음

그림 3 안전사고 발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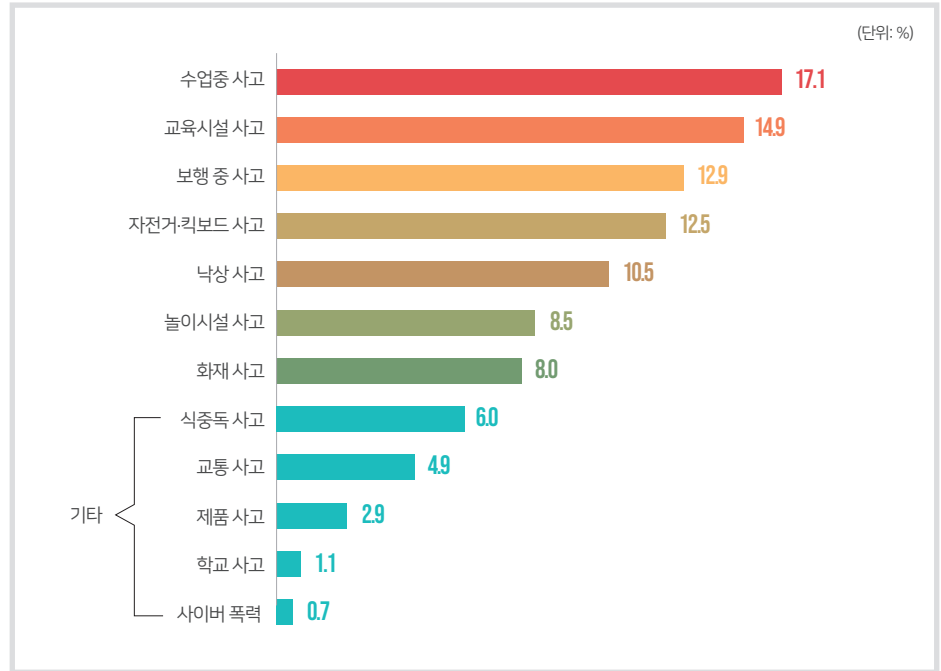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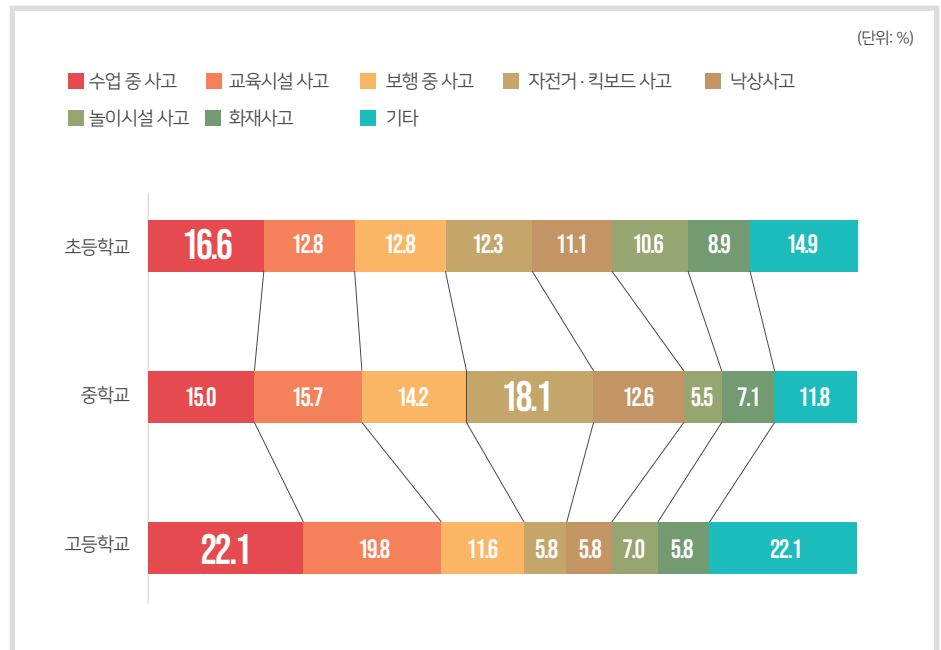


그림 4 학교급별 안전사고 발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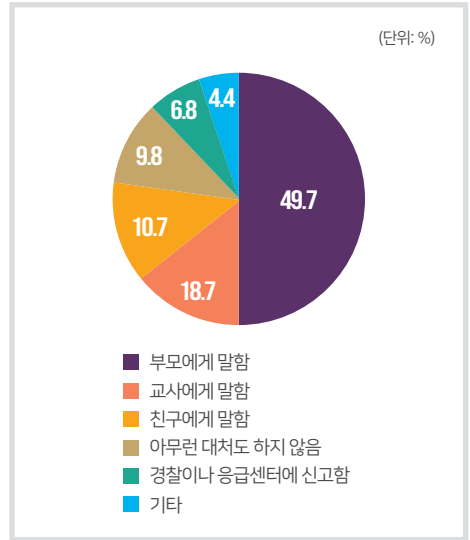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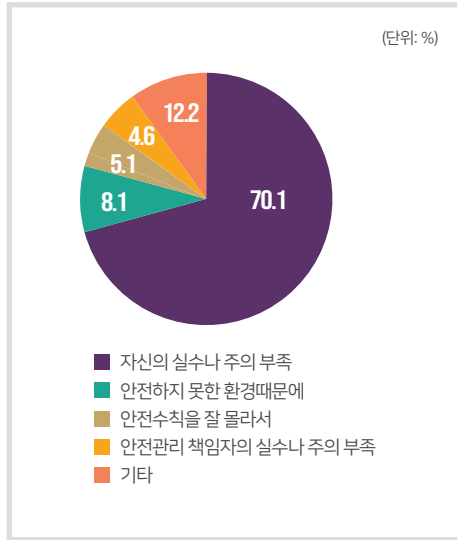


## ■ 안전사고 발생요인 및 대처

-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요인에 대해 '자신의 실수나 주의 부족'이 70.1%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가 8.1%로 나타남.
- 안전사고 난 후 처음 대처에 대해 '부모에게 말함'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에게 말함'(18.7%), '친구에게 말함'(10.7%)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이나 응급센터에 신고함'(6.8%)의 응답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그림 5 안전사고 발생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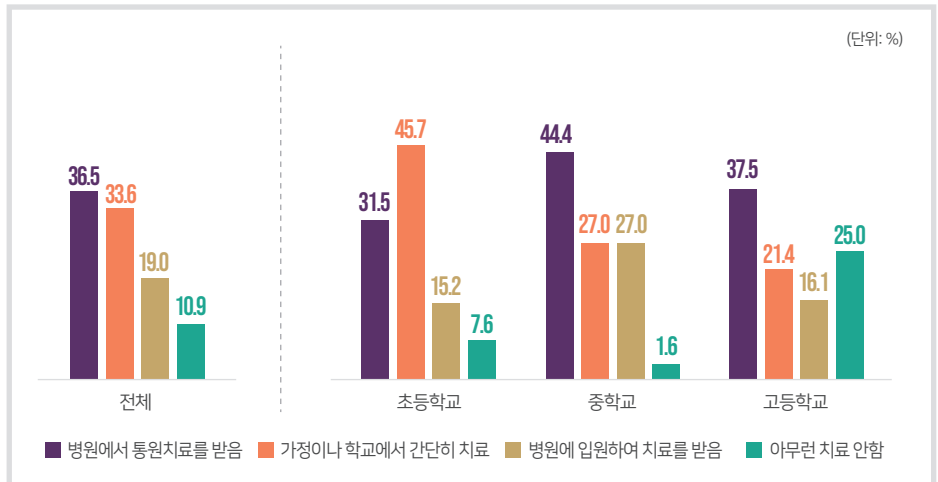
그림 6 안전사고 후 대처



## ■ 안전사고 이후 치료조치

- 안전사고 후 치료조치에 대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음'(36.5%)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간단히 치료'(33.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19.0%), '아무런 치료 안함'(10.9%)의 순임
- 안전사고 후 치료조치에 대해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초등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간단히 치료가 가장 많고, 병원 통원치료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증사고 경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그림 7 안전사고 후 치료조치



### 03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및 안전행동실천

#### ■ 위험체감도 (걱정되는 안전사고유형)

- 안전사고 유형 15가지 중에서 경남의 어린이들의 위험체감도가 가장 높은 안전사고 유형은 학교폭력이 17.7%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교통사고(15.6%), 개인정보유출(13.6%),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및 성착취(8.2%), 놀이 사고(8.0%) 등의 순임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20.3%)와 중학생(18.5%)은 학교폭력의 응답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는 교통사고(19.7%)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안전사고 경험에 따른 차이는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16.5%)와 놀이 중 사고(14.6%)가 높고, 사고경험이 없는 경우 학교폭력(18.6%)과 교통사고(15.4%)의 위험도에 대한 체감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그림 8 안전사고 유형별 위험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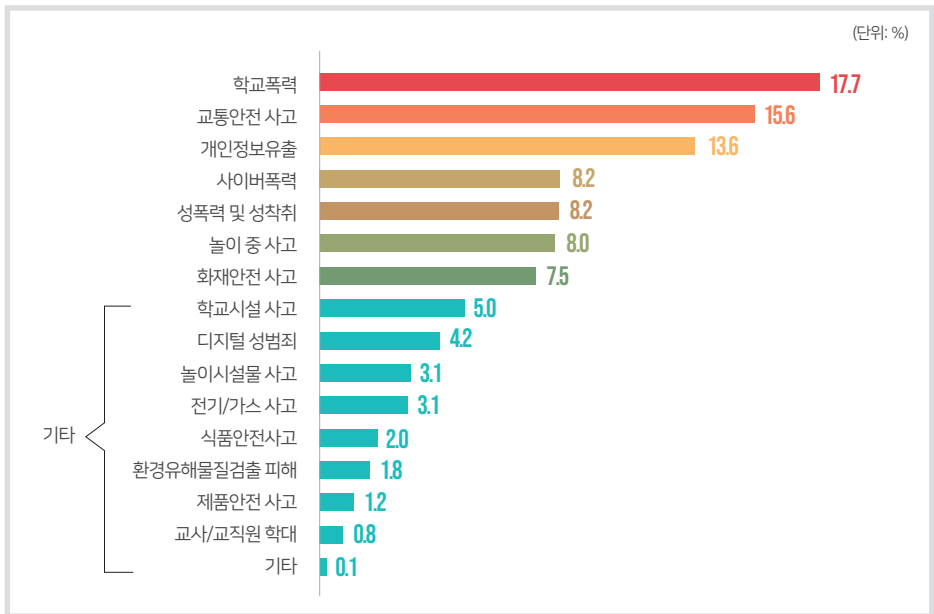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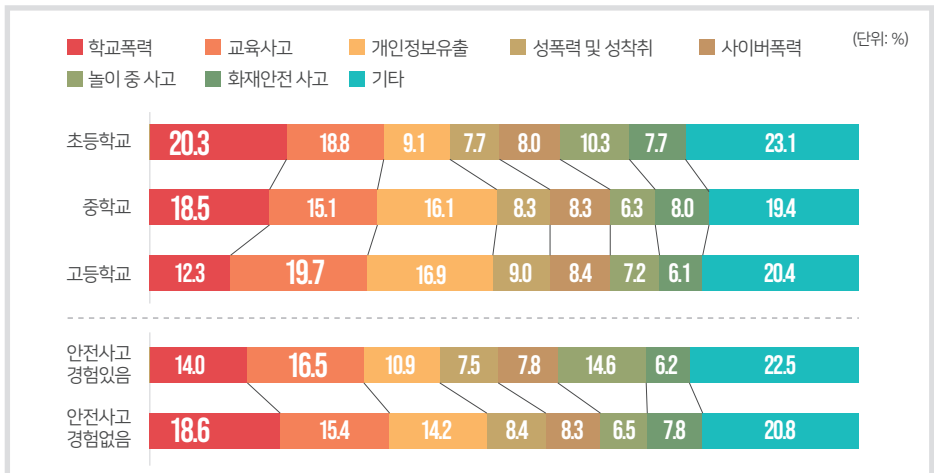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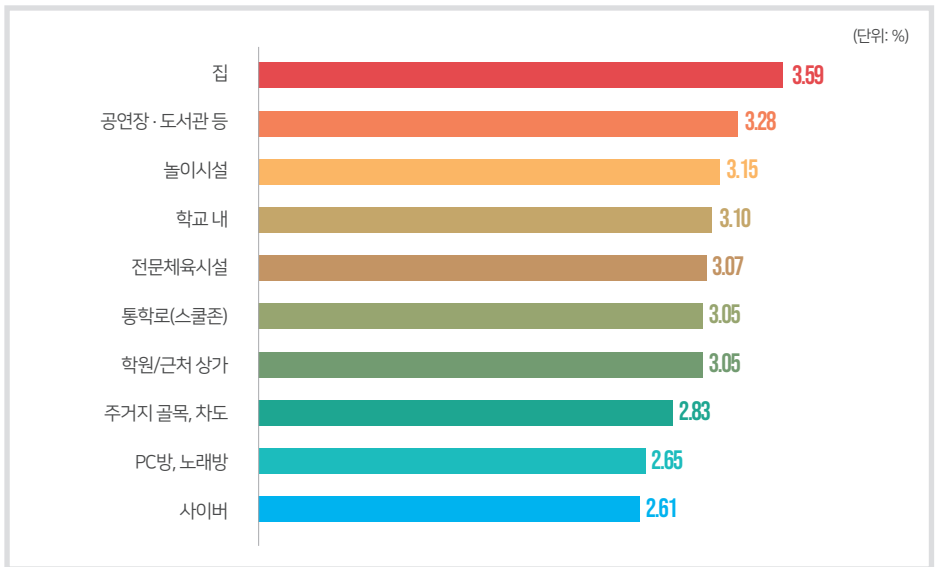
그림 9 안전사고 유형별 위험체감도 비교



### 생활공간 안전체감도

- 자신의 일상 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체감도(10가지 영역)는 4점 만점에 평균 3.04점으로 대체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그 중 집이 3.59점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다음이 공연장·도서관 등(3.28점), 놀이시설(3.15점), 학교 내(3.10점) 등의 순임
- 주요 생활공간의 안전체감도는 시지역과 군지역은 큰 차이가 없으나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사고경험 없는 경우가 더 안전체감도 높음

그림10 생활공간 안전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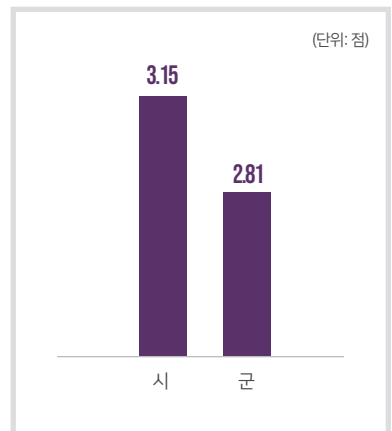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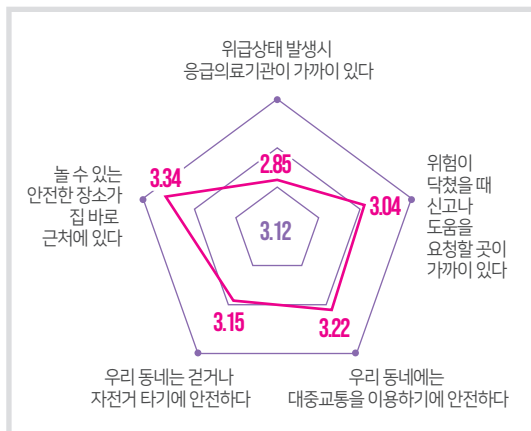


### 마을환경 안전체감도

-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환경의 안전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안전체감도가 비교적 높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집 바로 근처에 있다'(3.34점), '우리 동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다'(3.22점), '우리 동네는 걸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3.15점) 순이며, '위급상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이 가까이 있다'(2.85점)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함
- 마을환경 안전체감도는 거주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시지역(3.15점)보다 군지역(2.81점)이 마을환경 안전체감도를 낮게 인식함

그림11 마을환경 안전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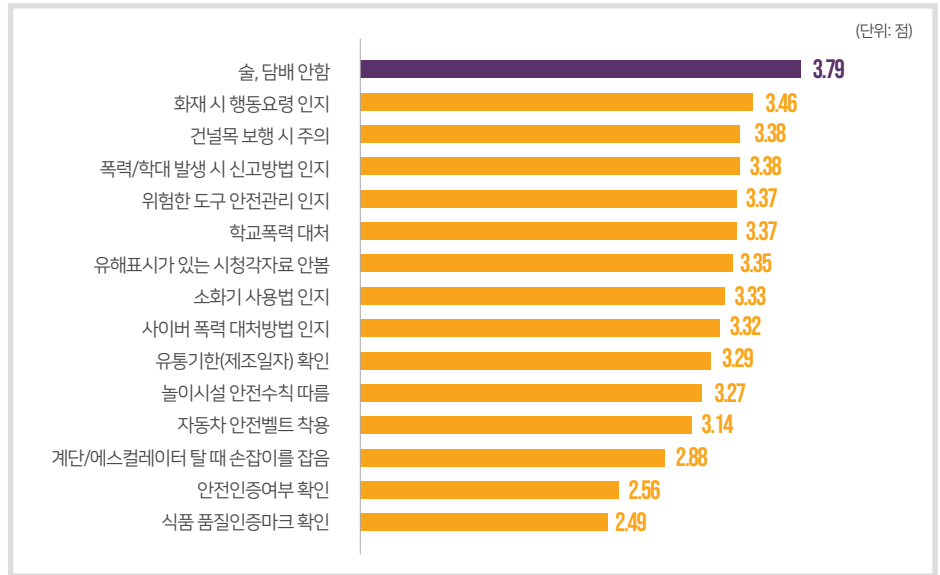
그림12 지역별 마을환경 안전체감도



**안전행동 실천**

-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의 안전행동실천정도(15개 항목)에 대해 4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안전 실천수준을 높게 평가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순으로 높음
- 항목별로는 '술·담배 안함'(3.79점)이 가장 높은 항목이며, 다음이 '화재 시 행동요령 인지'(3.46점), '건널목 보행 시 주의'(3.38점), '폭력/학대 발생 시 신고방법 인지'(3.38점) 등의 순이며, '안전인증여부 확인'(2.56점)과 '식품 품질인증마크 확인'(2.49점) 등을 낮게 인식함

**그림13** 안전행동 실천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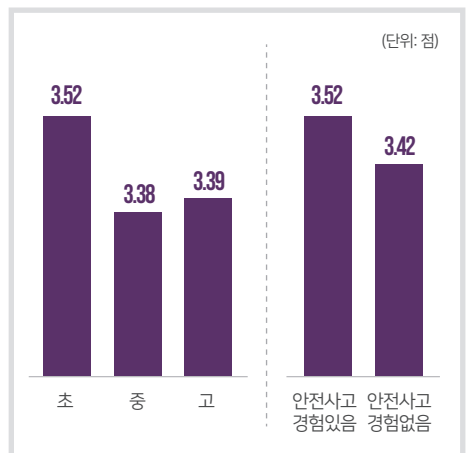


**안전교육 필요도**

- 안전 영역별 안전교육 필요도에 대해 범죄영역이 3.5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유해환경(3.52점), 교통안전(3.43점), 식품안전(3.37점), 이용시설안전(3.34점), 제품안전(3.21점)의 순이며, 기타 영역(3.55점)은 응급처치교육, 재난안전교육(화재, 지진) 등에서 안전교육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안전교육에 대해 학교급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그림14** 안전교육 필요도

**그림15** 안전교육 필요도 비교



## 04 어린이 안전영역별 정책 방안

### 정책추진 기반방향

-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구축
- 어린이 발달단계별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및 주체적 대응능력 강화
- 어린이 안전 책임을 공유한 정책대상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비전 및 세부추진 과제

그림16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경남의 미래,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
정책목표		어린이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
정책영역	세부목표	추진과제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li> <li>■ 어린이 교통 안전지도 / 단속강화</li> </ul>
제품안전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지원</li> </ul>
식품안전	어린이 식품안전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영양 불균형 해소</li> <li>■ 어린이 맞춤형 식생활 지원</li> </ul>
이용시설 안전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기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인프라 강화</li> <li>■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li> </ul>
유해환경 안전	어린이유해환경 관리체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유해환경 관리 체계 강화</li> <li>■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점검체계 강화</li> </ul>
범죄안전	어린이 범죄예방-대응체계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li> <li>■ 어린이대상 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li> </ul>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 체험 및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형 교육 인프라 구축</li> <li>■ 대상자별 안전교육 강화</li> </ul>

### 어린이 안전 정책실행 협력체계 구축

그림17 어린이 안전 협력체계(안)

